

2023. 5. 19.(금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5월 1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

생활환경과장

허정원

02-2133-3720

도시청결팀장

김경학

02-2133-3743

담당자

이성호

02-2133-3744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관련 누리집

www.seoul.go.kr

서울시 여름철 청소대책 시행·빗물받이 집중 청소로 침수피해 예방 나선다

- 시-자치구 긴밀하게 협력해 수해 폐기물 신속한 수거 처리체계 구축
- 수해 취약지역 빗물받이 주변 중점 청소...배수 기능 저해 요인 사전 차단
- 야외 행사장·유동인구 밀집지역·행락지 등 여름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
- 수해 대비 청소장비 및 수해복구 청소물품 예산 44.5억원 자치구 투입

- 올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서울시가 집중호우 발생을 대비하고 수해 폐기물은 신속하게 수거하는 여름철 청소대책을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먼저 집중호우 발생 시 수해 취약지역인 빗물받이 주변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, 자치구에 수해 발생 대비 청소장비 및 물품 구매 예산 44.5억원을 지원한다.
- 수해 폐기물 수거·처리는 사전대비→수해발생→수해복구 3단계로 진행한다. 시는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.

- 서울시는 청소대책 상황실을 기상 특보별 3단계로 나눠 운영하고, 침수 피해지역 및 수해 폐기물량 확인, 폐기물 수거 인력·장비 신속 동원, 수도권 매립지 반입 협의, 수해 폐기물 조기 처리 등을 총괄한다.
 - 자치구는 비상 단계별 청소 인력(총 6,775명)과 수거 차량(총 3,215대)을 현장에 투입해 수해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·처리하고 수해 지역에는 기존 적환장 34개소 외에 임시적환장을 추가로 설치한다.
 - 수해복구 기간 침수지역은 빠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우선 배출하며 수해 폐기물은 일차적으로 재활용하되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수해 지역 보도·도로의 토사 제거를 위해 도로 물청소차 160대를 투입해 물청소를 시행하고 수해 관련 적환장, 시설·장비 소독을 병행한다.
- 수해에 취약한 지역은 빗물받이에 쌓인 담배꽂초나 골목길의 쓰레기 등이 호우시 빗물받이를 막아 배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.
- 시는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주변을 집중적으로 청소해 수해 취약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.
 -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내부의 준설과 정비는 물순환안전국에서 우기 전에 전담 시행한다.
- 현재 서울 시내 빗물받이는 약 55만 7천 개로 환경공무원이 빗물받이 주변을 청소하고,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취약지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.
- 매월 네 번째 수요일 25개 자치구가 동시 청소에 나서는 ‘서울클린데이’는 5~6월 호우 기간을 대비해 차도·보도 주변 빗물받이 주변을 중점적으로 청소한다.

□ 이면도로의 골목길 청소나 저지대 빗물받이 주변은 주민 자율 청소조직 활동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재난 예방 봉사활동도 함께 추진한다.

- 골목길 등 거리 일정 구역을 월 1회 이상 청소하는 자치구 주민 자율 청소조직 2,529단체, 54,733명도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다.
- 또한,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5월부터 9월까지 재난예방·동네살핌 봉사활동 <안녕, 빗물받이>를 진행한다.
- 동캠프 활동가, 바로봉사단 등 3,000여 명이 참여하며, 주요 활동 장소는 지역 내 침수 우려 지역, 반지하 가구 밀집 지역 등이다. 참여자들은 수해 취약지역 근처의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주변 환경을 청소한 후 사회관계망(SNS)에 활동을 인증할 계획이다.

< 수해 폐기물 처리 >



< 도로 물청소 >



< 서울클린데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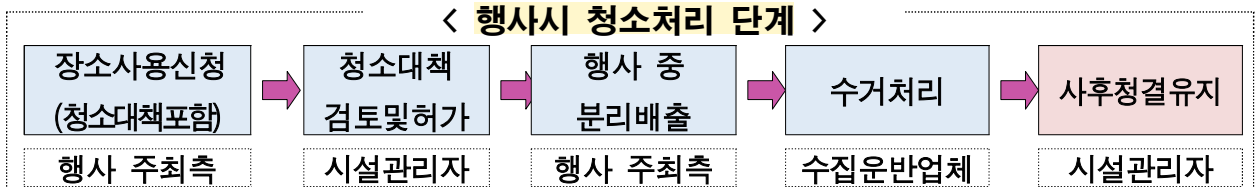
< 자원봉사센터 활동 >



□ 시는 집중호우 대비 외에도 여름철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대형행사장, 유동 인구 밀집 지역,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다.

- 도심지역 행사장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허가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아 행사 주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. 주최 측은 행사 전 쓰레기 분리배출을 미리 안내하고, 행사 중에는 청소인력을 고정 배치해 수시로 청소하며, 행사 후에는 자체 인력을 동원해 청소해야 한다.
- 행사장 주변은 시-자치구 주관으로 청소하며, 자치구는 긴급 청소 상황을 대비해 청소기동반을 운영한다.

< 행사시 청소처리 단계 >



- 인사동, 명동, 홍대, 이태원 등 다중 이용장소는 쓰레기통과 청소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.
- 행락지(등산로, 유원지 등) 관리 기관은 이용자가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행락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거나 지정된 장소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□ 한편, 시는 청소 장비 및 수해 관련 물품 구매비 44.5억원을 25개 자치구에 지원했다. 지원 사항은 ▲노면 청소기 등 친환경 청소 장비, ▲ CCTV 등 무단투기 감시장비, ▲가로 쓰레기통·담배꽂초 수거함, ▲수해복구 물품 등이다.



□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올여름 이상기후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청소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”라며 “집중호우 전 빗물받이 주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청소하고, 수해 발생 시 신속하게 폐기물 처리 대책을 가동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